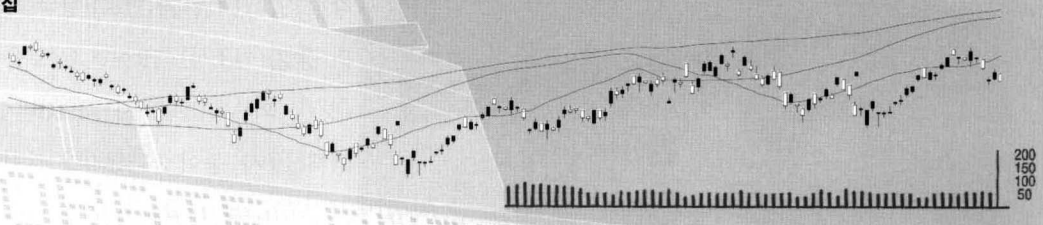
국내 경제경영서의 활로를 찾아서

8월 특집



IMF체제 이후 한국의 경제경영서적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인 독서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소설 등 문학 도서의 수요가 줄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에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장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저자의 책이 아니라 미국·일본 등 외국인 저자의 책이다.

글로벌 시대라고는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배제된 경제경영서들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 있다. 훌륭한 경제경영서가 수입돼도 우리경제의 최적화를 이루는 '맞춤형' 한국경제서적이 필요하다.

국내저자의 경제경영서의 필요성은 단지 결과물의 필요성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건 그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그들이 한국 경제를,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분석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지압이나 안마를 받듯 보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월호 특집으로 국내저자의 경제경영서 출판현황을 짚어보았다. 물론 현실은 우려만큼이나 밝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꾸준히 국내 경제경영서적을 다루려 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그 시작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경제를 이끌 국내 경제경영서 출판의 활기를 기대한다.

확대된 시장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 우리 경제경영서 출판의 과제

글_표정훈(출판평론가)

경제경영서는 대학교재나 학술도서에서부터, 처세실용서나 재테크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고 책의 성격이 다양하다. 때문에 그 전반적인 현황을 개괄하고 전망한다는 게 까다롭다. 책 내용의 성격에 따라 대략 분류해 본다고 해도 재테크 실용서, 경제현상의 이해를 돕는 실용적인 교양서, 리더십 관련 도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경제 마인드 안내서, 마케팅 및 세일즈 관련 실용서, 비즈니스맨의 자기관리 처세실용서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경영서가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출판장르로 부각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현대 경영학의 신神으로 일컬어지면서,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에서부터 처세실용서 분야에 이르는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피터 드러커의 경우를 보자. 1971년 《현대와 경영》(장문각)과 《단절의 시대》(장문각), 1974년 《매니지먼트》(한국능률협회), 1980년 《난기류시대의 경영》(범조사), 1989년 《새로운 현실》(시사영어사), 1990년 《방관자의 시대》(범우사), 1993년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한국경제신문사) 등이 출간됐지만, 간헐적이고 산발적이었다.

그런데 1999년 이후 드러커 번역서는 봇물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속속 출간됐다. 1999년 《21세기 지식경영》, 2000년 《21세기 리더의 선택》과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지식경영자》를 필두로, 이후 매년 2~5종의 책이 출간된 것이다. 1999년이 어떤 해였던가? 연초 지수 500선이던 주가가 7월 13일 1,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주식졸부들이 양산됐다. 1998년 GDP 성장률이 -6.7퍼센트였던 데 비해 1999년에는 10.7퍼센트라는 고속성장을 달성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IMF 금융 체제로 진입한 뒤 1년 반 정도가 흐른 시기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공허한 슬로건으로서의 세계화를 다분히 역설적이게도 IMF 체제라는 위기국면을 통해 몸으로 절감해야 했던 우리 사회는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재테크 열풍에 휩싸였고, 이후 2000년과 21세기의 시작을 통해 세계경제 및 경영의 흐름에 발맞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갔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가 2000년 6월 발간한 보고서 〈Digital Economy 2000〉이 명시했듯 컴퓨터, 컴퓨터 구성요소, 통신기기의 획기적인 비용삭감과 맞물려 신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는 논의가 분분한 때이기도 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가격하락이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불러와 이른바 신경제라는 인플레 없는 고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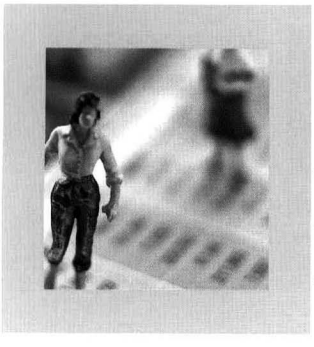
경제경영서 장르의 본격적인 부각은 바로 그런 현실 및 인식과 궤를 같이 했다. 예컨대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널리 각광받은 6시그마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관련도서가 출간

되기 시작하여 2000년 한 해 동안만 10종 가까운 관련 도서가 출간됐다. 잭 웰치, 빌 게이츠 등 기업경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관련 도서나 최고경영자, 즉 CEO 관련 도서 역시 시기적으로 마찬가지 추세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하나의 본격 장르로서의 경제경영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지난 3~4년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현재를 포함한 지난 3~4년 경제경영서 출판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번역서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주요 베스트셀러 필자를 보면 스티븐 코비, 허브 코헨, 잭 웰치, 피터 드러커, 켄 블랜차드, 스펜서 존슨, 로버트 기요사키 등 외국 필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최근 들어와 변화된 추세로 재테크 실용서 분야의 경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바탕을 둔 책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기요사키의《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황금가지)의 열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나서《한국의 부자들》(위즈덤하우스),《나의 꿈 10억 만들기》(원앤원북스),《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매일경제신문사) 등 우리나라 필자들의 재테크 관련 도서들이 부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서지만《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을파소)를 필두로 어린이 경제경영서가 부각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경제교육 혹은 재테크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3, 40대 부모 세대가 현실에서 느끼는 곤혹감을 반영하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내용상 처세실용서로 분류할 수 있는 설득, 대화, 협상 관련 도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허브 코헨의《협상의 법칙》(청년정신)을 필두로 로저 도슨의《설득의 법칙》(비즈니스북스), 아네트 시몬스의《스토리텔링》(한언) 등, 비즈니스는 물론 다양한 인간관계와 실무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협상과 대화를 주제로 한 책들이 부각됐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술자리 밀실 협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협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좋든 싫든 협상과 관련한 국제적인 관행이나 표준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도 중요한 요인임은 물론이다. 김기홍의《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굿인포메이션) 역시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봇물을 이루다시피 했던 CEO 관련 도서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우선 인물도서의 경우《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김영사) 정도를 제외하면《세계 최고의 여성 CEO 칼리 피오리나》(해냄),《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청림출판),《CEO 히딩크》(바다출판사) 등 외국 인물 일색이었다. 우리 비즈니스계가 귀감이 될 만한 CEO를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CEO라는 명칭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했다는 현실도 반영한다. 소니사를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구해낸 CEO 이데이 노부유키 회장의 저서《ON&OFF》(청림출판)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주제 측면으로 보면《위대한 CEO 엘리자베스 1세》(위즈덤하우스),《최고경영자 예수》(한언),《마틴 루터 킹의 리더십》(시아출판사),《아리스토텔레스가 제너럴 모터스를 경영한다면》(예문) 등 역사 인물의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꾸준히 출간됐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주춤한 편이다. 리더십 관련 도서를 포함한 경제경영서 전반에서 두드러진 최근 추세 가운데 하나로, 일본도서를 번역한 책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미국 도서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일본의 장기 불황과 함께 세계화가 사실상 미국화와 동일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는 쪽보다는 뜨는 쪽, 약한 쪽보다는 강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경영이 아닌 경제 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중국경제 관련 도서가 부각됐다.《WTO로 가

는 중국》(박영률출판사), 《중국과 WTO》(에코리브르), 《차이나 쇼크》(매일경제신문사), 《차이나 임팩트》(청림출판), 《중국의 몰락》(뜨인돌), 《중국은 가짜다》(홍익출판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경제의 현실진단과 전망을 다룬 책은 물론 중국경제의 허상을 다분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책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아울러 《거부》(이지북), 《상경》(더난출판사), 《중국인의 상술 : 중국대륙을 움직인 상인들 이야기》(한길사)처럼 중국경제의 전통적인 측면을 주제로 하는 책들도 꾸준히 나왔다.

지금까지 주마간산격으로 경제경영서 분야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시점에서 '실용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경영 교양서 혹은 사회과학 교양서의 의미까지 지니는 책의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 보고 싶다. 예컨대 빌 에모트의 《20:21 비전-도전받는 평화, 의심받는 자본주의》(더난출판사), 제프리 가튼의 《부의 혁명》(참솔),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창해) 등이 있다. 세계 경제 및 경영현실을 국제정치, 사회문제 등의 맥락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폭넓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책들이다.

그 밖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돌베개), 데이빗 스미스의 《공짜점심 : 점심 시간에 읽는 경제학》(이지앤), 찰스 윌런의 《벌거벗은 경제학》(황금가지)처럼, 경제 교양수준을 높일 수 있는 책들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서 공히 우리나라 필자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급한 유시민 외에 정갑영, 송병락, 구본형, 공병호, 그리고 몇몇 신문사 경제부 및 그 소속 기자들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제경영 전문 필자군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경영서에 대한 각종 매체의 서평에서도 드러난다. 책 내용의 단순한 서베이(둘러 봄) 수준을 넘어서 내용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본격적인 경제경영서 서평이 아쉬운 것이다. 지난 3~4년 동안 확대된 시장 규모에 부합하는 내실과 다양성의 확보 및 국내 필자군의 형성 등을 경제경영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싶다.